

# 王質詩用韻研究

白鍾仁\*

---

◁ 목 차 ▷

- I. 序論
  - II. 陰聲韻部와 특수현상
  - III. 陽聲韻部와 특수현상
  - IV. 入聲韻部와 특수현상
  - V. 結論
- 

## I. 序論

宋代用韻 연구는 詞에 대한 연구에서 다시 詩에 대한 연구로 접어들면서 완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宋遼金用韻研究論著目錄〉<sup>1)</sup>을 살펴보다라도 특정 시인 혹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바라는 최종 목표는 宋代의 모든 자료를 연구하여, 그 최종 결과를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자체도 계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복된 연구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다시 특정인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 특정인이 전체적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일찍이 박사논문으로 北宋 山東지역에 대한 詩·詞·文 전반에 걸쳐 연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모든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用韻 연구에 있어 해당 지역의 方

---

\* 우송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학과 초빙교수

1) 劉曉南 〈宋遼金用韻研究論著目錄〉: 〈南大語言學〉, 第1編, 北京, 商務印書館, 2004년 378쪽.

함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宋代는 역사적으로 北宋과 南宋이 갈리면서, 長江 이북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長江 이남으로 이주해버렸으므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언어에는 본적에 기록된 언어와는 다른 계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이런 이유로 山東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시기적으로 北宋으로 제한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이후 그렇다면 南宋 山東 출신 시인들의 用韻은 여전히 여타 山東 시인들과 비슷한지 아니면 이미 이주해버린 지역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 그 用韻 체계는 어떤 모습일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바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먼저 연구하게 된 시인이 바로 王質이다.

특정인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대상에 대한 행적이다. 특정 지역은 앞서 말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정인은 비록 문서상의 고향은 山東이지만 어려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냈던 곳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료만 놓고서 이들의 특징이 순전히 山東 지역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王質은 南宋 사람이나 시기적으로 北宋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王質에 대한 연구가 北宋시기와 南宋시기를 연결해주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王質(1135~1189)의 자는 景文, 호는 雪山, 鄆州(지금의 山東 東平) 사람이나, 후에 興國軍(지금의 湖北 陽新)으로 옮겨갔다. 高宗 紹興 30년(1160)에 進士를 지냈고, 후에 여러 관직을 지내다가 淳熙 16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문집으로는 《雪山集》, 《紹陶錄》, 《詩總聞》이 전해진다.

연구방법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全宋詩》의 王質 詩를 연구 대상으로 먼저 韻段을 뽑는다.<sup>2)</sup> 본인은 韻段을 카드 작업 대신 바로 엑셀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였다. 엑셀을 통한 데이터 작업에 대해서는 본인의 박사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sup>3)</sup> 데이터에 대해 《廣韻》 및 《集韻》을 참고하여 韻을 찾은 후, 서로 合韻을 바탕으로 같은 韻部로 귀납시켰다. 특정 韻部로 귀

2) 拙稿 〈宋代 詩詞 韻段 판별에 대해서〉, 《中國學》 제22집, 대한중국학회, 2004년. 참조.

3) 拙稿 〈北宋山東詩文詞用韻研究〉, 南京대학교 박사논문, 2001.

남되지 않거나 기존 韻書와 다른 音韻현상을 보이는 예를 따로 정리하여 분석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王質의 近體詩 232수 232개 韻段, 古體詩 188수 480개 韻段, 총 420수 712개 韻段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王質의 詩는 18개의 韻部로 귀납되었다.

이제부터 王質 詩에 대한 用韻 현상을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 II. 陰聲韻部와 특수현상

각 韻部の 서술방식은 다음과 같다 : 18개의 韻部를 주된 韻 두 가지를 사용하여 韻部 명칭으로 삼았다. 韻部 명칭을 소절의 제목으로 삼고 바로 아래는 韻部的 구성성분이 되는 韻을 제시하였고, ( ) 안에는 《廣韻》에서 이 韻의 獨用과 同用 여부를 표시하였으며, 총 韻段 수도 표기하였다(여기에 특수한 韻段은 제외했다). 도표에는 近體詩와 古體詩를 구분하여 이 韻들의 合韻 현상과 合韻 수를 표시하였다. 도표의 아래에는 古體詩의 仄聲韻들의 合韻 현상을 따로 제시하여, 도표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平聲韻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참고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예외 현상, 특수한 合韻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王質 詩의 陰聲韻部는 모두 : 歌戈, 家麻, 魚模, 尤侯, 皆來, 齊微, 蕭豪 7韻部이다.

### 1. 陰聲韻部

#### (1) 歌戈部

歌戈部는 歌, 戈 2개의 韻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歌, 戈同用) 모두 21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歌	歌戈	總計
近體詩	1	11	12
古體詩	4	5	9

## (2) 家麻部

家麻部는 佳韻의 “涯”와 麻韻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麻獨用) 모두 21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麻	佳麻	總計
近體詩	2	2	4
古體詩	8	3	11

(仄聲 6 : 卦1, 禡1, 馬禡2, 卦禡2)<sup>4)</sup>

歌戈部에서 중요한 것은 佳麻의 合韻이다. 이들의 合韻 예가 많은 데도 같은 韻部에 넣지 않은 이유는 佳麻의 合韻이 佳韻의 일부 韻字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佳韻은 원래 皆來部에 속하지만, 佳韻의 일부 韻字의 음이 변하여 歌戈部와 合韻한 것으로 본다.<sup>5)</sup> 王質의 近體詩에서 “涯”, 古體詩에는 “涯, 佳”가 麻韻과 合韻하고 있다.

## (3) 魚模部

魚模部는 魚, 虞, 模 韻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魚獨用, 虞, 模 同用) 모두 52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魚	虞	模	魚虞	魚模	虞模	魚虞模	總計
近體詩	4	1		1	3	3		12
古體詩	1	4	6	4	2	7	8	32

(仄聲 8 : 御1, 夔1, 夔姥語1, 夔語暮1, 語遇暮1, 暮姥遇1, 語夔遇1, 御遇暮語1)

- 仄聲 뒤의 숫자는 仄聲 전체 韻段의 숫자이며, 韻 뒤의 숫자는 合韻한 차수를 의미한다. 王質은 近體詩에서 두 개의 入聲韻이 쓰인 예를 제외하면, 모두 平聲韻을 쓰기에 仄聲에 해당하는 시는 모두 古體詩이므로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 이런 현상을 보이는 현재까지 연구된 佳韻자에는 “涯, 佳, 罷, 卦, 畫, 灑”와 夫韻의 “話”자 등이 있다.

近體詩에서 魚, 虞, 模 韻의 合韻은 없으나, 魚虞, 魚模, 虞模 사이의 合韻 현상으로 보아 하나의 韻部로 귀납하였으며, 古體詩는 魚, 虞, 模 韻의 合韻이 8번이나 된다.

(4) 尤侯部

尤侯部는 尤, 侯, 幽 韻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尤, 侯, 幽同用) 모두 28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尤	尤幽	尤侯	侯幽	總計
近體詩	5		3		8
古體詩	4	1	7	1	13

(仄聲 7 : 有2, 宥1, 有宥1, 有厚2, 宥候1)

(5) 皆來部

皆來部는 佳, 皆, 灰, 咍와 去聲 泰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佳, 皆同用, 灰, 咍同用, 泰獨用, 卦怪夬同用) 모두 13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咍	灰咍	佳皆	總計
近體詩	1	4		5
古體詩	1	3	1	5

(仄聲 3 : 代怪2, 海泰1)

먼저 王質의 詩에서 皆來部와 合韻하는 佳韻자는 “鞋, 街”였다. 도표만으로는 灰, 咍의 合韻만 명확할 뿐, 佳, 皆와의 合韻은 古體詩에 한 번뿐이다. 그러나 仄聲에서 代와 怪의 合韻이 명확하여 이들을 하나의 韻部로 귀납했다. 去聲韻 泰는 《廣韻》에서 獨用이나 仄聲 韻例를 보면 海와 合韻하였기에 皆來部에 넣었다. 王質의 詩에서 夬는 韻例가 없다.

(6) 齊微部

齊微部는 支, 脂, 之, 微, 齊와 去聲 祭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支, 脂, 之同用, 齊, 微獨用, 祭, 霽同用) 모두 141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微	齊	之	支微	支齊	支之	支脂	脂之	脂微	之微	之齊	微齊	支之微	支脂之	總計
近體詩	14	1	1	3	1	3		1	5	4	1	1	5	5	45
古體詩	3	1	1	13	2	2	1	1	3	7		2		3	39

韻目	支脂微	支脂齊	支之微	支之齊	支微齊	脂之微	脂微齊	之微齊	支脂之微	支脂之齊	支之微齊	脂之微齊	支脂之微齊	總計
古體詩	4	1	6	2	1	1	1	1	1	1	1	1	1	22

仄聲(다소 복잡하여 도표로 만들)

旨	齊止	至止	旨紙	旨尾	置紙	止旨	齊志	旨齊	至祭	至未	止旨至	止尾齊	紙旨志	止紙齊	至紙齊	止旨尾	至祭志	止旨紙	尾旨置	總計	
1	3	1	4	4	1	1	6	1	1	1	1	1	1	1	1	1	1	1	2	1	35

王質의 用韻에서 祭는 모두 3번 나오는데, 두 번은 齊微部와 合韻하고 나머지 한 번은 皆來部와 合韻하고 있다. 《廣韻》에서 祭는 霽와 同用이고, 霽는 이미 齊微部에 귀납되었으므로, 祭도 齊微部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皆來部와 合韻하는 예를 특수현상으로 본다. (2절의 특수현상 참조.)

(7) 蕭豪部

蕭豪部는 蕭, 宵, 肴, 豪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蕭宵同用, 肴, 豪獨用) 모두 24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蕭	宵	豪	蕭豪	蕭宵	宵豪	肴豪	宵肴	蕭宵豪	宵肴豪	總計
近體詩			1		1	1					3
古體詩	1	3		1	2	4	1	2	1	1	16

(仄聲 4: 皓號1, 皓2, 嘯笑1, 筱皓1)

近體詩에서 蕭, 宵, 肴, 豪 사이의 合韻이 명확치 않으나, 古體詩에는 확

연히 드러난다.

## 2. 陰聲韻部の 특수현상

王質의 近體詩에서는 陰聲韻部の 특수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古體詩에서 11개의 특수현상이 있는데 이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歌戈部와 家麻部

위 두 韻部の 合韻 현상이 한 번 나타났다. 28881쪽 〈魚烏子〉<sup>6)</sup>에 모두 3개의 韻段이 있는데, 그 중 가운데 韻段이 平聲 麻와 戈이다. 앞의 韻段은 去聲韻이고 마지막 韻段은 入聲韻이므로 麻와 戈의 合韻이 명확하다.

위 두 韻部の 合韻은 南北朝 제 1기 시인의 특색으로, 제 2기부터는 위의 두 韻部가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唐代에 이르러서는 명확하게 두 개의 다른 韻部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각 시기별로 이들 韻部 사이에 合韻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仿古로 본다.<sup>7)</sup>

### (2) 歌戈部와 魚模部

이 두 韻部の 合韻은 福建과 江西 지방 시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劉曉南은 이를 福建지방의 文讀과 白讀의 차이 때문이라고 봤다.<sup>8)</sup> 이 현상이 山東 시인들에게서도 일부 나타났었는데, 王質의 詩에서도 한 예가 있다. 28822쪽 〈送施內卿〉에서 전체 詩가 句마다 押韻하는 柏梁體 詩로 魚, 虞, 模韻을 48번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戈韻의 “摹”자가 들어 있다. 이 시는 句마다 押韻하기에 “摹”자가 押韻字임에는 틀림없다. 이 글자는 上古音이 魚部

6) 시의 제목은 〈 〉기호를 쓰기로 한다. 본고에서 자료로 제시하는 시는 모두 《全宋詩》로 이를 따로 표기하지 않으며,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만 표기하기로 한다.

7) 「歌麻混用은南北朝第一期詩人的特色, 從南北朝第二期開始分化了。少數第二期的人歌麻同用, 大約只是仿古。(歌, 麻의 혼용은 南北朝 제 1기 시인의 특색으로 南北朝 제 2기부터는 분화되었다. 소수의 제 2기 사람들이 歌, 麻를 合韻하는 것은 대체로 단지 仿古일 것이다.)」王力 《王力文集》, 山東教育出版社, 1962년 15쪽 참조.

8) 劉曉南 《宋代閩音考》, 岳麓書社, 1999년 173쪽 참고.

에 속하므로 仿古로 판단된다.

### (3) 尤侯部와 魚模部

王力の 말에 따르면 “尤韻의 開口三等字가 虞韻으로 들어간 후 다시 脣齒音으로 변하는 현상이 9세기 혹은 더 이른 시기에 있었으며, 12세기 이후는 아닐 것이다.”<sup>9)</sup>라고 했다. 尤侯部の 脣音字가 魚模部에 들어가는 현상은 唐代부터 많아졌는데, 非脣音字가 魚模部와 合韻하는 현상은 드물다.

山東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 魚模部에 들어간 글자는 “婦, 負, 母, 敵”였으며, “謀, 否, 富”는 尤侯部와 魚模部 두 곳에 다 속해 있었다.<sup>10)</sup> 王質의 詩에서는 28812쪽 〈和郭從范(二)<sup>11)</sup>〉에서 厚韻 “母”자 한 예만 보인다.

### (4) 齊微部와 皆來部

王質 詩의 陰聲韻部 用韻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齊微部와 皆來部의 合韻현상이다. 古體詩에서 모두 8개의 예가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 ① 28824쪽 〈贈開懷道人〉: 전체 詩가 句마다 押韻하는 柏梁體 詩로 30개의 支, 脂, 之, 微, 齊韻 가운데 灰韻의 “推”字와 哈韻의 “來”字가 들어 있다.
- ② 28865쪽 〈禮育王塔辭〉: 支, 微韻 사이에 灰韻의 “回”字가 끼어 있다.
- ③ 28871쪽 〈栗里花藥〉: 灰韻字 “梅”와 齊韻字 “溪”가 같이 쓰였다.
- ④ 28871쪽 〈栗里卉木〉: 홀수 구에 灰韻字 “摧”가 쓰였으나, 같은 형식의 다른 詩와 비교했을 때, 이 자리에 韻을 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韻字로 판단된다.<sup>12)</sup>

9) 王力 《漢語史稿》 114~115쪽 科學出版社 1958년.

10) 拙稿 〈北宋山東地域用韻研究〉, 《中語中文學》 제2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1년 76쪽 참고.

11) 시 제목 안의 ( ) 안의 숫자는 동일 제목 시의 순서를 매긴 숫자이다.

12) 홀수구의 韻자 판단에 대해서는 줄고 〈宋代 詩詞 韻段 判別에 대해서〉, 《中國學》 제 22집, 대한 중국학회, 2004 참고.



- ⑤ 28876쪽 〈畫眉兒〉：灰韻字 “陪”와 微韻字 “飛”가 같이 쓰였다.
- ⑥ 28891쪽 〈水芋頭〉：전체 시가 脂, 齊韻이 쓰였는데, 중간에 灰韻의 “魁”字가 韻字로 끼어 있다.
- ⑦ 28887쪽 〈銅峯〉：齊韻字와 隊韻字 “隊”가 같이 쓰였다.
- ⑧ 28865쪽 〈移積金澗辭〉：代韻의 “代”와 泰韻의 “外”가 韻字로 쓰이고, 祭韻의 “世”字가 豁수 구에 쓰였다. 豁수 구에 쓰인 만큼 이를 韻字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나, 詩 전체가 豁수 구에 韻이 쓰였기에 韻字로 판단 된다.

“灰, 脂, 隊, 泰(合口)”韻字들이 皆來部에서 齊微部로 이동하는 현상은 唐·宋代에 보편적인 언어현상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 시가의 用韻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王質의 詩에서도 이처럼 대량의 예가 나타났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王質의 詩에서 서로 押韻한 皆來部の 韻字는 “推來回梅陪魁隊代外”이다. 山東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 皆來部에 속한 글자들은 “杯醅陪梅媒煤堆類雷灰徊煨” 등이 있고, 齊微部에 속한 글자들은 “梅佩搖檣” 등이며, 두 곳 모두에 속한 글자들은 “催嵬回對退碎外會” 등이었다.<sup>13)</sup>

### Ⅲ. 陽聲韻部와 특수현상

王質 詩의 陽聲韻部는 모두：眞文, 寒先, 侵尋, 覃咸, 東鍾, 江陽, 庚青 7韻部이다.

#### 1. 陽聲韻部

##### (1) 眞文部

眞文部는 眞, 諄, 臻, 文, 欣, 魂, 痕, 元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13) 拙稿 〈北宋山東地域用韻研究〉, 《中語中文學》 제2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1년 77쪽 참고.

眞, 諄, 臻同用, 文, 欣同用, 魂, 痕, 元同用) 모두 30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眞	魂	文	眞諄	眞文	眞魂	眞痕	諄文	魂痕	魂文	魂痕元	諄魂痕	眞諄魂	總計
近體詩	1	4	1	7				1	1		1		1	17
古體詩	1			2	1	2	1	1	2	1		1		12

(仄聲 1 : 準吻1)

(2) 寒先部

寒先部는 寒, 桓, 山, 刪, 先, 仙, 元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寒, 桓同用, 山, 刪同用, 先, 仙同用) 모두 77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寒	先	寒桓	寒先	寒山	寒元	山刪	先仙	桓山	桓先	山仙	元仙	寒桓山	寒桓先	寒山先	總計
近體詩		2	7	1			6	16	1				1	1	1	37
古體詩	1	2	3		3	1	1	4		2	1	1				19

韻目	寒先元	寒桓先	寒先仙	桓刪仙	山先仙	山刪先	寒桓仙元	寒先仙元	總計
古體詩	1	2	1	1	1	1	1	1	9

仄聲(다소 복잡하여 도표로 만듦)

換	霰	緩	獮	獮線	阮產	輪霰	阮線	線換	輪緩	願禰	諫輪換	願線換	總計
2	1	1	1	1	1	1	1	1	1	1	1	1	14

(3) 侵尋部

侵尋部부는 侵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侵獨用) 모두 9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侵	總計
近體詩	3	3
古體詩	5	5

(仄聲 1 : 寢1)

(4) 覃咸部

覃咸部는 覃, 談, 鹽, 添, 銜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覃, 談同用, 咸, 銜同用, 鹽, 添同用, 嚴, 凡同用) 모두 5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覃	銜	鹽添	覃談	總計
近體詩			1	1	2
古體詩	1	1			2

(仄聲 1 : 感敢1)

(5) 東鍾部

東鍾部는 東, 鍾, 冬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東獨用, 鍾, 冬同用) 모두 46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東	鍾	東鍾	東鍾冬	東冬	總計
近體詩	18	2	3	1	1	25
古體詩	9	2	8	1		20

(仄聲 1 : 送用1)

(6) 江陽部

江陽部는 陽, 唐, 江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江獨用, 陽, 唐同用) 모두 53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陽	唐	江唐	江陽	陽唐	江陽唐	總計
近體詩	3	1	2		14	1	21
古體詩	11			1	12	2	26

(仄聲 6 : 養漾1, 漾1, 漾宕1, 漾蕩1, 養漾宕1, 養漾蕩1)

(7) 庚青部

庚青部는 庚, 耕, 清, 青, 蒸, 登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庚, 耕, 清同用, 蒸, 登同用, 青獨用) 모두 38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庚	清	青	蒸	庚清	清青	清青蒸	庚登蒸	清青庚登	總計
近體詩		1	5		12	1				19
古體詩	3		1	1	4	3	1	1	1	15

(仄聲 4 : 迥梗2, 梗勁1, 徑靜等1)

## 2. 陽聲韻部の 특수현상

近體詩에서 17개의 특수현상이 보이나, 이 가운데 出韻<sup>14)</sup>은 하나뿐이고, 나머지 16개가 모두 借韻 현상<sup>15)</sup>이다. 古體詩에서는 모두 47개의 특수현상이 나타났다.

### (1) 眞文부와 寒先부

이 둘의 合韻 현상은 주로 “元” 韻 때문인 경우가 많다. “元” 韻은 원래 眞文部이나, 실제 用韻에서 寒先부와 合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宋代 用韻 연구 논문에서 “元” 韻이 결국 어느 韻部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두 韻部에 모두 귀속시키고 있다. 魯國堯 선생은 宋代 詩詞에서 “元” 韻은 眞文部를 떠나 寒先部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보았다.<sup>16)</sup> 王質의 시에서 이 같은 현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眞文부와 合韻하는 경우는 近體詩에서 한 번뿐이고, 寒先부와는 近體詩에서 1번 古體詩에서 4번이나 合韻하고 있다. 전통적인 用韻을 중요시하는 近體詩에서 寒先부와 合韻한 현상이 나타났고, 眞文부와 合韻이 이런 近體詩에서 한 예 외에 古體詩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밖에 “元” 韻 이외 두 韻部 사이의 合韻 현상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元” 韻의 영향을 받았기 때

14) 近體詩에서 偶句(짝수 구)는 반드시 押韻을 해야 하는데, 禮部韻이나 平水韻을 벗어나 押韻을 한 것을 말한다.

15) 錢大昕이 《十駕齋養新錄》16권 “借韻”에 이르길 : “五七言近體詩第一句借用旁韻, 謂之借韻(五七言 近體詩에서 首句에 근처의 韻을 빌어 사용하는 것을 借韻이라고 한다.)”

16) 魯國堯 《論宋詞韻及其與金元詞韻的比較》, 《魯國堯自選集》, 河南教育出版社, 1994. 131~176쪽 참조.

문이지 두 韻部가 섞이는 경향을 보이는 증거는 아니다. 王質의 시에서도 近體詩와 古體詩에 각각 하나의 예가 있다.

近體詩 : 28840쪽 〈和李平仲出郊〉“山, 刪, 文”<sup>17)</sup>.

古體詩 : 28816쪽 〈題觀政池橋〉“元, 仙, 刪, 魂”.

## (2) 東鍾部와 江陽部

위 두 韻部의 合韻은 대체로 夏門, 潮州 등지의 방언에 많이 나타난다. 北宋 山東 시인들 가운데에서도 晁公遯 외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辛棄疾의 詞에 3개가 보이고, 王質의 시에도 3개가 나왔다. 이는 남방 방언의 특징으로 보인다.

古體詩 : 28865쪽 〈移積金澗辭〉“陽, 東”, 28879쪽 〈青椿〉“江, 冬”, 28887쪽 〈鵲嘲〉“陽, 東”.

## (3) 庚青部와 江陽部

이 두 韻部의 合韻 현상을 魯國堯 선생은 吳方言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sup>18)</sup> 그러나 북방지역에서도 소수의 예들이 보이는데, 宋代 北京 지역에 3개, 北宋 山東 지역에 4개가 보인다. 王質의 시에서도 4개의 예가 있다. 이 중 3개가 近體詩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하나의 예로 보아도 되는 것이 나머지 두 예는 모두 앞의 韻을 그대로 사용한 시이기 때문이다.

近體詩 : 28860쪽 〈問查元章覓龍團茶〉“庚, 陽”, 28860쪽 〈用前韻謝元章惠茶(一)〉“庚, 陽”, 28860쪽 〈用前韻謝元章惠茶(二)〉“庚, 陽”.

古體詩 : 28823쪽 〈與張安國圍棋勝者命題負者賦詩作藤枕歌〉“陽, 庚, 江”.

## (4) [-m], [-n], [-ŋ] 세 韻尾 사이의 合韻

17) 특수한 韻段의 예를 들 때 이처럼 “안에 合韻한 韻만 제시하기로 한다.

18) 魯國堯 〈論宋詞韻及其與金元詞韻的比較〉, 《魯國堯自選集》, 河南教育出版社, 1994. 148쪽 참조.

이들 사이의 合韻 현상은 晉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점점 늘더니, 宋代에 들어와서 더욱 많아졌다. 우리들이 주목할 부분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사라진 [-m] 韻尾의 문제인데, 이들 사이의 合韻 현상이 많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특수한 合韻으로, 宋代에서 이들 韻尾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王質의 시에서 이들 사이의 合韻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近體詩 13개, 古體詩 42개의 合韻 현상이 있다.

### ① [-m]과 [-n]

侵尋部, 覃咸部와 眞文部, 寒先部 사이의 合韻 현상으로 近體詩 2개, 古體詩 20개의 예가 있다. 近體詩의 두 예는 모두 隣韻으로 出韻의 예는 없었다. 古體詩는 자료로 활용을 위해 모든 예를 들겠지만, 지면 관계로 쪽수와 제목만 나열하기로 한다.

近體詩 : 28843쪽 〈送陶茂安知永州〉 侵韻字가 쓰인 시에 眞韻의 “塵”字가 隣韻으로 들어갔다. 28844쪽 〈觀政堂成上黃少譽(一)〉 侵韻字가 쓰인 시에 文韻의 “文”字가 隣韻으로 들어갔다.

古體詩 : 28809쪽 〈江鱸〉 “津, 粼, 塵, 吻, 簪”, 28814쪽 〈墨梅〉 “山, 元, 鹽”, 28815쪽 〈起伏龍行呈張元亮〉 “先, 仙, 鹽”, 28816쪽 〈聽譚師彈琴〉 “侵, 文, 痕”, 28820쪽 〈贈黃君〉 “覃, 先, 仙”, 28821쪽 〈贈楊溥〉 “桓, 山, 刪, 先, 仙, 元, 鹽, 覃, 談, 凡”, 28864쪽 〈穫西田下溪辭〉 “眞, 侵”, 28864쪽 〈移積金澗辭〉 “文, 侵”, 28865쪽 〈築層樓辭〉 “先, 仙, 咸”, 28871쪽 〈栗里案〉 “眞, 侵”, 28870쪽 〈栗里鋤鋤刀斧〉 “侵, 眞”, 28878쪽 〈鴻鵠〉 “寒, 桓, 鹽”, 28878쪽 〈鷺鷥〉 “魂, 侵”, 28880쪽 〈鳩鵲〉 “魂, 侵”, 28883쪽 〈合輩〉 “寢, 震”, 28884쪽 〈槐芽〉 “鹽, 銜, 寒”, 28886쪽 〈水芽兒〉 “諄, 侵, 魂, 痕”, 28887쪽 〈婆看蠶〉 “覃, 田, 鹽”, 28890쪽 〈苦菜〉 “先, 談, 桓”, 28892쪽 〈茯苓酥〉 “仙, 添”

### ② [-m]과 [-ŋ]

侵尋部, 覃咸部와 庚靑部 사이의 合韻 현상으로 近體詩에 2개 古體詩에 5개의 예가 있다. 近體詩는 역시 첫 구에 다른 운이 쓰이는 隣韻이었다.

近體詩 : 28843쪽 <題張君量恩波寺> “侵, 靑”, 28858쪽 <題大浩寺> “侵, 登”.

古體詩 : 28809쪽 <江鱸(四)> “侵, 靑”, 28819쪽 <送羅君> “靑, 侵, 庚”, 28880쪽 <魚鷹> “蒸, 侵, 庚”, 28881쪽 <水鶯子> “深, 登”, 28882쪽 <黃精> “清, 侵, 靑”.

### ③ {-n}과 {-ŋ}

眞文部, 寒先部와 庚靑部 사이의 合韻 현상으로 近體詩에 9개 古體詩에 15개의 예가 있다. 近體詩에서 특이한 것은 出韻의 예이다. 28855쪽 <上虞相行春口號(八)> “靑, 仙”.<sup>19)</sup>

近體詩 : 28839쪽 <秋夜讀書(一)> “眞, 庚, 清, 靑”, 28841쪽 <代虞樞密宴晁制置口號(一)> “清, 魂”, 28843쪽 <余過荊州張安國已請祠先行> “文, 庚, 清”, 28846쪽 <送王充老歸盱江> “清, 文”, 28847쪽 <謝王巽澤新火> “清, 眞, 諄”, 28855쪽 <上虞相行春口號(八)> “靑, 仙(出韻)”, 28855쪽 <上虞相行春口號(九)> “清, 眞”, 28858쪽 <送徐聖可(八)> “庚, 眞”, 28859쪽 <題竇伯山小隱詩> “魂, 庚, 清”.

古體詩에 15개의 예가 있다.

28808쪽 <漢清(一)> “眞, 清”, 28809쪽 <江鱸(一)> “文, 魂, 清”, 28810쪽 <故事相國金印紫綬三公亦如之作金印辭> “迥, 梗, 震”, 28811쪽 <荷柳松竹贈答(二)> “庚, 眞”, 28814쪽 <墨梅> “登, 眞, 魂”, 28816쪽 <和游子明效李長吉體(二)> “庚, 靑, 諄”, 28816쪽 <聽譚師彈琴> “眞, 庚, 清”, 28824쪽 <贈南道人> “靑, 眞”, 28869쪽 <栗里床> “軫, 梗”, 28890쪽 <甜藤> “靑, 諄, 登, 庚, 清”, 28892쪽 <茯苓酥> “眞, 靑”, 28892쪽 <松粉> “吻, 隱, 混, 梗”, 28897쪽 <題李贊可掀篷梅軸(二)> “庚, 眞”, 28898쪽 <集少陵佳句題和政堂呈使君> “庚, 眞”, 28867쪽 <鹿皮巾> “庚, 眞”.

19) 近體詩에서 이 예만 出韻이고, 다른 예들은 모두 借韻이다.

④ [-m], [-n], [-ŋ]

鼻音 韻尾 세 가지가 다 合韻하는 경우로 古體詩에서만 2개의 예가 있다. 28823쪽 〈送空上人歸育王〉“侵, 清, 文”, 28864쪽 〈游斜川辭〉“登, 眞, 侵”.

#### IV. 入聲韻部와 특수현상

王質 詩의 入聲韻部는 모두 屋燭, 鐸覺, 薛帖, 德質 4개 韻部로 나눌 수 있다.

(1) 屋燭部

屋燭部는 屋, 燭, 沃으로 이루어져 있다.(《廣韻》: 屋獨用, 燭, 沃同用) 모두 11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屋	屋沃	屋燭	總計
合韻	2	1	8	11

(예외: 覺屋1, 薛屋1, 屋燭陌屑1)

《廣韻》에서 屋은 獨用이나, 실제 도표를 보면 燭韻과 8번을 合韻하였다. 屋, 燭, 沃 세 韻 사이의 合韻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2) 鐸覺部

鐸覺部에는 鐸, 藥, 覺으로 이루어져 있다.(《廣韻》: 覺獨用, 鐸, 藥同用) 모두 12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鐸	覺	鐸覺	鐸藥	鐸藥覺	總計
合韻	3	1	2	4	2	12

(예외: 覺緝1)



《廣韻》에서 覺은 獨用이나, 실제 도표를 보면 鐸韻, 藥韻과의 合韻으로 보아, 鐸, 藥, 覺 세 韻 사이의 合韻 역시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3) 薛帖部

薛帖部에는 薛曷屑合帖月物沒末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合盍同用, 葉帖同用, 洽狎同用, 業乏同用, 曷末同用, 黠鎋同用, 薛屑同用, 月沒同用, 物獨用) 모두 14개의 韻段이 있다.

韻目	薛	末	薛屑	帖月	黠末	薛曷	物沒	黠合月	屑帖月	總計
合韻수	3	2	2	2	1	1	1(近體)	1	1(近體)	14

(예외 : 黠陌末1, 薛虞月1)

王質의 시에 나타나는 韻만 표시했다. 韻例가 많지 않아, 曷이나 合은 예가 한 번 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韻部와의 合韻이 없기에 薛帖部로 포함시켰다. 비교적 특이한 현상으로는 近體詩에 두 수 入聲韻이 쓰인 예가 있다. 그 가운데 28859쪽 <舟中題石母洞前潭中玉犀石>에는 借韻으로 物韻이 쓰여, 物沒이 合韻하고 있는데, 《廣韻》에서 物은 獨用이다. 즉, 近體詩에서도 入聲韻은 禮部韻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4) 德質部

德質部에는 術陌德質職昔錫麥緝으로 이루어져 있다. (《廣韻》 : 質術禡同用, 迄獨用, 職德同用, 陌麥昔同用, 錫獨用, 緝獨用)

韻目	陌	昔	緝	術	質	質	錫	麥	昔	陌	職	昔	昔	德	職	昔	質	陌	質	總計
수	2	2	1	1	1	1	1	1	1	4	1	1	1	4	1	1	1	1	1	20

(예외 : 職帖月1, 陌月2, 月質緝1, 質鐸月1, 薛麥德1, 皓昔1, 陽昔1)

入聲에서 가장 복잡한 韻部로 이들 사이의 合韻이 도표에서는 명확하나,

주로 薛帖部와의 合韻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薛帖部의 [-t]韻尾와 德質部의 [-k]韻尾의 合韻 현상이 두드러진 때문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보아 [-p]韻尾의 소실이 눈에 띄는데, [-p]韻尾는 이미 단독으로 韻部를 만들지 못하고, [-t]와 합하여 薛帖部가 되거나, [-k]와 합하여 德質部가 되었다.

## V. 結論

王質 시의 특징을 정리해본다면, 陰聲韻部에서 歌戈部와 家麻部, 歌戈部와 魚模部 合韻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났다. 尤侯部 唇音 “母”자가 魚模部와 合韻하였으며, 齊微部와 皆來部 合韻 현상이 古體詩에서 모두 8개의 예가 나타났다. 陽聲韻部에서는 “元”韻 이외 眞文部와 寒先部, 東鍾部와 江陽部, 庚青部와 江陽部의 合韻이 있었다. 특히, [-m], [-n], [-ŋ] 세 韻尾 사이의 合韻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近體詩 13개, 古體詩 42개의 合韻 현상이 있었다. 入聲韻部에서 복잡하지만 여전히 4개의 韻部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p]韻尾의 소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王質은 1135년에 태어났다. 北宋은 1127년으로 끝나고, 1128년부터는 南宋 시기에 접어든다. 그러므로 王質이 태어나기 7년 전부터 湖北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山東 출신이었으므로, 그의 언어에 영향을 준 말이 山東일지 湖北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시 420수 712개의 韻段을 연구하여 분석한 결과, 王質의 用韻이 山東지역 보다는 湖北지역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근거로 아직 湖北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用韻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湖南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湖南 지역에는 陽聲韻部 중 鼻音 韻尾가 하나로 합해진 현상이 발견되었다.<sup>20)</sup> 王質의 시에서도 近體詩 17개 古

20) 田範芬《宋代荆湖南路詩人用韻考》湖南師範大學 석사논문 2000년. 이 논문에서 荆南 지역의 76명의 시인 1854수의 시에 대한 用韻을 연구한 결과 다른 지역과 다르게 鼻音 韻尾가 하나의 韻部로 귀납되었으며, 이는 湖南 지역의 방언적 특징이 시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體詩 58개의 특수 현상 가운데, 近體詩 13개와 古體詩 42개의 특수 현상이 바로 陽聲韻部 중 鼻音 韻尾에 관한 合韻 현상이었다. 비록 山東 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일부 존재하고, 아직 湖北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어느 정도의 추론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王質은 특정인의 음운현상을 연구하기에는 문학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시작이 뛰어나거나 많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王質은 宋代 山東 지역에 대한 用韻 연구에 있어서 南宋의 시작부분에 속하는 시인으로서 韻例가 다양하고 많기에, 특정인으로 다루어 보았다. 앞으로 南宋 山東지역의 모든 시인을 연구해 본다면 더욱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가 전체적인 음운 연구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王質의 시에 陰聲과 入聲과의 合韻 현상이 보이는데, 28875쪽 〈百舌兒〉에서 “掇, 娛, 舌, 月”이 서로 押韻하고 있고, 28812쪽 〈初春〉에서 “陽, 暘”이 서로 押韻하고 있다. 또 28898쪽 〈聖燈偈〉은 서로 押韻하지 않는 시로, 아직 연구가 미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 여러 제현들의 많은 의견을 구하는 바이다.

### 【參考書目】

- 《集韻》, 北京市中國書店, 1983.  
 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余迺永 《新校互註宋本廣韻》, 上海辭書出版社, 2000.  
 李 榮 主編 《濟南方言詞典》, 江蘇教育出版社, 1997.  
 魯國堯 〈論宋詞韻及其與金元詞韻的比較〉, 《魯國堯自選集》, 河南教育出版社, 1994.  
 —— 《魯國堯語言學論文集》, 江蘇教育出版社, 2003.  
 劉曉南 〈宋遼金用韻研究論著目錄〉: 《南大語言學》, 第1編, 商務印書館, 2004.  
 —— 《宋代閩音考》, 岳麓書社, 1999.  
 劉曉南, 張令吾 主編 《宋遼金用韻研究》, 香港文化教育出版社, 2002.  
 王 力 《王力文集》, 山東教育出版社, 1962.  
 丁治民 《唐五代北京地區詩文用韻》, 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0.

- 朴柔宜〈唐代河南詩韻의 上去合韻에 관한 小考〉, 《中國文學研究》, 2004.  
白鍾仁〈宋代 詩詞 韻段 判別에 대해서〉, 《中國學》, 대한중국어학회, 2004. 제22집.  
——〈北宋山東地域用韻研究〉, 《中語中文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1. 제29집.  
田範芬《宋代荆湖南路詩人用韻考》,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0년.

### 【中文提要】

本文以南宋山東詩人王質爲研究對象考察了他420首詩的712個韻段的用韻情況。結果歸納爲18個韻部，跟其他詩人的通語18部系統相似。部分特殊用韻有：歌戈部與家麻部，歌戈部與魚模部同押一次。尤侯部脣音“母”字與魚模部同押。齊微部與皆來部同押有8次。有“元”韻以外真文部與寒先部同押的現象。東鍾部與江陽部，庚青部與江陽部同押。尤其是鼻音韻尾〔-m〕，〔-n〕，〔-ŋ〕之間混押的現象特別明顯：近體詩有13個，古體詩有42個。入聲韻雖然複雜，但韻部之間的界限還是清楚的。其中〔-p〕韻尾的消失比較明顯。

王質可以說是比較接近北宋的南宋詩人。他出生7年之前一家人都遷到湖北，因此我們懷疑他的用韻會帶有山東的用韻系統或是湖北的。結果雖然宋代湖北詩人的用韻研究尚未完整，但根據宋代湖南詩人用韻研究的結果來推斷，王質的用韻接近于湖北的用韻系統。

希望今後我們在研究所有的山東籍南宋詩人的用韻時，在他所生活的地區語言系統的基礎上進一步研究，以更加了解宋代山東詩人的韻部系統。

### 【主題語】

王質，詩，用韻，押韻，合韻，韻部